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2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앙-지방 협력 강화 논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시·도 간담회 개최 -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화) 오전 10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4년 12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자살사망자 수: ('22) 12,906명 → ('23) 13,978명 → ('24. 1~11월, 통계청 잠정치) 13,271명

■ 해당 방안에는 ▲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도 '24년 전국 9개 시·도에서 '25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 또한 시·도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했다.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자살시도자의 욕구와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연계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자살유족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일시 주거, 특수청소, 행정 법률 처리, 학자금 지원 등)

■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9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55,053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241,524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25.2.3. 기준).

■ 특히, 올해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2급) 변경을 희망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완화(33㎡→16.5㎡)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되며, 1회당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에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825. 자살예방정책과. 25. 2. 11.

II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향상 위한 재정투자 사업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 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 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25~'27) ▲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수술실 현대화 ▲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 건축, 보건의료, 임상 의료,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시설·장비지원) 개요

■ 추진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⑥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
서울	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부산	부산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경북	칠곡경북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남	경상국립대병원
세종	세종충남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 지원 내용: 국비 812억원(지방비 812억원, 자부담 406억원 매칭 예정)

- ① (수술 치료 역량 강화: 420억원) ▲ 수술실 인프라 첨단화, ▲ 중증질환 치료장비 확충 등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지원
- ② (중환자 진료 선진화: 392억원)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 중환자 진료 관련 시설·장비 개선 지원

■ 지원 내용

- 비수도권 권역 책임의료기관(14개소): 수술·치료 역량 강화와 중환자 진료 강화를 패키지로 지원 (①+②)
- 수도권 권역 책임의료기관(3개소): 중환자 진료 인프라 선진화 중심으로 지원 (②)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830. 공공의료과. 25. 2. 13.

III

일상돌봄·긴급돌봄 제공기관도 네이버 지도로 검색·예약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0일(목)부터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변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4년 하반기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1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위치기반 검색·예약기능이 제공되었으며, 여기에 ▲ 일상돌봄 ▲ 긴급돌봄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 ('24.8~)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 발달지원 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4.10~) ▲ 전국민마음투자지원

※ [‘24.8.7. 보도참고자료]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네이버 지도로 검색·예약하세요

■ 이로써 일상돌봄·긴급돌봄 바우처 이용자(약 12,000명)가 바우처를 활용하는 700여 개의 제공기관 정보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선택·예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보건복지부 유주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관 협업을 통한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키워드

○ 사회서비스 키워드 입력 시 이용자 주변 제공기관 조회 가능

대분류	소분류	키워드
	전체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바우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바우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바우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마음투자바우처
	일상돌봄 지원사업	일상돌봄바우처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서비스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843. 사회서비스사업과. 25. 2. 20.

IV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

-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 추가 및 6세→16세 미만으로 확대 -
- 초기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 신설 및 보상강화, 유방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 촬영술 급여화 -
-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 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 6세 미만 고난도 수술행위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수술시에도 가산이 필요한 항목 선정

■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하여 자궁체를 보존하여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 그 간의 자궁경부 절제술은 행위분류가 없어 광범위자궁적출 수술 행위를 준용

** 그간 준용·청구해왔던 기준인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골반림프절제술」의 121% 수준으로 보상

- 유방암 진단의 경우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아진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한다.
- 2025년 3월부터는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에 대해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백혈병,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864. 보험정책과. 25. 2. 27.